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대한조선, PC 2척 수주

대한조선이 그리스 선사로부터 115,000DWT급 PC선 2척을 수주함. 2023년 5월부터 인도예정임. 4분기 악화된 유조선 시황 속 국내 조선소 중 유일하게 중형급 유조선 수주에 성공함. (선박뉴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논의

현대중공업이 수주호황으로 일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전북도·군산시와 협의 중. 현재 수주목표 달성을 151%임. 군산조선소는 2017년 7월 가동을 멈췄음. (뉴시스)

Moody's predicts strong 2022, despite containers and bulkers cooling off

Moody's는 2022년 운임시장은 '안정적'으로 전망함. 컨테이너, 벌크 운임 강세 유지, 탱커 턴어라운드로, 2021년보다는 낮지만 COVID-19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예상함. 제한적인 신조선 인도량도 운임 유지에 근거임. (Tradewinds)

오미크론이 '컨'시장 호황 연장

지난 18개월간 컨테이너선 시장호황은 팬데믹 관련 요인들의 상호 작용이었는데 오미크론 변종 확산 시 호황이 연장될 것. 소비자의 지출 패턴이 재화에서 다시 서비스로 집중되는 시점이 훨씬 늦춰질 것으로 보도됨. (선박뉴스)

Fewer ships are anchoring at the Port of Los Angeles, but it doesn't mean the supply chain is healing

바이든 행정부의 24시간 운영조치, 벌금조치가 시작되며 11월 중순 항만 대기 선박 수가 크게 줄었지만, 병목현상이 해결되지 않음. 11월 15일, 환경오염을 우려한 Marine Exchange는 150마일로 대기 지역을 확대함. 입항 대기 선박은 11월 16일 86척, 11월 22일 60척에서 현재 96척으로 보도됨. 56척은 기존 규정이었던 40마일 밖에 있음. (Quartz)

Asian demand 'draining' Europe of much-needed WTIV tonnage

아시아 수요 증가로 풍력단지 설치 용량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쓸리고 있다고 보도됨. 중국시장의 개화도 영향이 있음. (Tradewinds)